



“제발 70여년 응어리진 恨 풀어달라”

4·3수형생존인 재심 청구

일반재판 옥살이 1200여명
이번 재심 결과에 큰 기대

두 번째 재심 재판 청구에 나설 제주 4·3수형생존인들이 제주지방법원에 발을 디뎠다.

제주4·3도민연대는 22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제2차 4·3수형생존인 재심재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70년 세월을 앓아간 불법적 국가폭력을 심판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재심 청구에는 김두환(91) 할아버지가 유일하게 수형생존인으로 참석했으며 송순희(94·여), 송석진(93), 김보생(91·여), 변연옥(90·여), 장병식(89), 김영숙(89·여), 김정추(88·여)씨 등 7명은 가족이 대신 자리했다.

이번 재심 청구에서 주목할 부분은 4·3 당시 군법회의(군사재판)가 아닌 ‘일반재판’을 받고 옥살이를 한 김두환 할아버지가 청구인에 이름을



4·3수형생존인 8명은 22일 제주지법 앞에서 재심 청구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을 통해 70여년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올렸다는 점이다. 4·3 때 일반재판을 받은 제주도민은 12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성산을 난산리에서 나고 자란 김 할아버지는 1948년 4월 11일 “마을 사람들과 폭도에게 식량을 제공할 것을 결의, 폭도에게 잡살 1회를 제공했다”는 누명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목포형무소에서 10개월 동안 수형생활을 했다. 또 경찰 심문

과정에서는 장작으로 구타를 당하고, 코에 물을 넣는 등의 고문도 있었다.

김두환 할아버지는 “좁쌀을 준 적도 없는데 강제로 끌려가 두드려 맞고 옥살이까지 했다. 출소 이후에도 자식들은 연좌제에 걸려 불이익을 받았다”며 “이번 재판을 통해 70여년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1차에 이어 2차에도 변호를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군법회의는 앞서 공소기각 판결이 났기 때문에 1차 재심보다는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일반재판의 경우는 판결문과 기소 관련 자료가 남아 있다. 김 할아버지가 고문과 불법구금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이 진술을 얼마나 신뢰할 지가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김 할아버지에 대한 재심 결정이 난다면 4·3 당시 일반재판으로 옥살이를 했던 제주도민들의 억울함을 풀 길도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1차 재심 재판에서 공소기각을 선고 받은 김평국(90) 할머니 등 4명이 참석해 2차 재심 청구인들을 응원했다. 김 할머니는 “우리는 재판을 먼저 받은 선배”라며 “2차 재심 청구인들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들으니 안타깝다. 재판에 꼭 이겨서 죄를 씻어내길 기대한다. 우리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제주 ‘4대 범죄’ 최근 3년 2만6485건

동부경찰서 관내 1만건

제주도내 3개 경찰서 중 동부서에서 ‘4대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4대 범죄는 살인·강도·절도·폭력을 일컫는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제주에서 발생한 4대 범죄는 2만6485건이다.

이 가운데 동부서가 1만8건(37.7%)으로 가장 많았고, 서부서 9319건(35.1%), 서귀포서 7158건

(27%)으로 뒤를 이었다.

이 기간 살인사건은 총 49건이 발생했는데 동부서 24건(48.9%), 서부서 16건(32.6%), 서귀포서 9건(18.3%)으로 나타났다.

올해 동부서에서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고유정 전 남편 살해사건’이 발생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부서에서는 지난 15일 모 명상수 립원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서부서는 해당 수련원 원장 H(58)씨를 유기치사와 사채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송은범기자

지검, 업무상 배임 ‘재밋섬’ 무혐의 결론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주시 삼도2동 소재 재밋섬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이 발생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된 것과 관련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박경훈 전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김홍두 전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이재성 재밋섬파크 대표에 대해 지난 15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고발된 이들은 모두 재밋섬 건물 매입에 관련된 인물로, 이재성 대표

에게는 사기 혐의가 추가로 달렸다. 고발인은 정의당 제주도당이다.

검찰은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 도지사 사전 승인 등의 절차가 모두 지켜졌다고 봤다.

아울러 부동산 매입 액수가 부적정하거나 소유권 이전 절차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증거도 없으며, 특히 배임죄의 경우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야 성립되지만 이 사건은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어 최종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송은범기자

개 2마리 차에 묶고 질주 지법 50대 징역 1년6개월

차량에 개 2마리를 묶어 질주한 50대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6시17분쯤 제주시 애조로에서 훈련을 시킨다는 이유로 개 2마리를 자신의 승용차 뒤에 끈으로 묶은 뒤 약 4km를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개들이 승용차를 따라오지 못하자 오히려 속도를 더욱 높였고 개들이 바닥에 떨어져 끌려오는 데도 약 300m를 주행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올해 1월 10일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던 자신을 제지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협박하기도 했으며, 같은해 5월 12일 0시 59분쯤 제주시 연동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 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제주시보건소는 22일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했다. 접종 대상은 만 60세 이상과 생후 36개월~12세 이하 어린이,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4·3희생자와 유족 등이다.

“불법 주·정차 마세요” 서귀포시 순회 캠페인

서귀포시는 지난 4월부터 사람이 안전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의식개혁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성산읍을 시작으로 읍면동에서 추진해온 캠페인은 24일에는 대정읍 관내 자생단체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시민동참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횡단보도·버스정류소·도로모퉁이·소화전 등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 참여제

도를 집중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또 현장에서 주정차 단속요원과 함께 불법주정차 단속을 체험하게 되며,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해 상향된 과태료(4만~8만원)를 즉석에서 발부하는 시연도 병행한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2공항 저지 전국화” 반대단체 ‘전국행동’ 결성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보도자료를 통해 21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회에서 10여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를 위한 전국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에서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을 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제주의 환경파괴와 군사기지화를 막기 위한 전국적인 연대방안을 논의한 끝에 시민사회에 ‘전국행동’ 동참을 호소하기로 결의했

다”며 “전라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무시하는 국토부의 막가파식 건설강행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향후 제주 제2공항 문제를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한 서명운동, 일간지 광고 기금 모금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23일 ‘한국작가회의 제2공항 강행중단 기자회견’, 24일 ‘제2공항 강행중단 촉구 생명평화미사’, 29일 ‘제주를 지켜라 촛불문화제’, 31일 ‘제주와 함께하는 10월의 마지막 밤’ 등 문화제도 진행하고, 내달 1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결성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활동계획을 밝힐 계획이다.

김현석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비자림 공사현장 방문”

김상훈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현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비자림을 지키기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김 청장은 24일 제주도에 내려가 시민들과 함께 비자림로 현장을 둘러보고 또 제주도청과도 만나 그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현석기자

노비타 스파비데 출시 기념 이벤트

“비데에 스파를 더하자
행운을 더하자!”

이벤트기간 | 9월 18일 ~ 10월 31일

당첨자 발표 | 11월 15일

노비타 제주점 (구.제민일보 맞은편)

신광로터리 | 빙스 | 마리나사거리 | 마리나호텔

신제주로터리 | 요양병원

구입문의 제주대리점 064)758-0991

EVENT 01 구매 인증 경품 추첨 이벤트

1등 휴테크 안마의자 1대

2등 골드바 1톤 5명

3등 백화점 상품권 5만원 권 10명

4등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100명

이벤트 대상 제품 BD-TE91M / BD-TD90M / BD-AFD500 / BD-WD60 / BD-AE91

EVENT 02 특별한 사은품 증정 이벤트

프리미엄 BD-TE91M 399,000원

프리미엄 BD-TD90M 379,000원

BD-AC50N 199,000원

NEW BD-AE91 269,000원

사은품: 자동 디스펜서, 정품 필터 (2개)